

## 일본, 일식의 차세대 계승 캠페인

- 일식육성단체로 구성된 '일본문화국민회의'의 요청에 따라 「일식의 날」인 11월 24일 일본 전국 2천여개 초등학교에서 일식 계란말이(다시마끼) 등을 일제히 급식으로 배부하였다.
- 일식(和食)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2주년(2013년12월)을 맞이하여 일본정부는 일식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차세대에게 어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다.
- 각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특산품으로 급식 반찬을 만듬으로서 일식 문화의 보전승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- 일식 문화유산은 일단 등록이 되더라도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, 일본 정부는 내년에 유네스코에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.



- 한편, 「일식을 멀리하는 차세대에게 일식문화의 계승이 과제」라고 인식하여 급식이벤트를 매년 확대하여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는 약 2만교의 초등학교에 일식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.

(출처 : 농업협동조합신문11.9일자 )

## ■ 시사점

- 일본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어린이 세대들이 일본의 전통음식을 접해 보지 못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위기위식을 느낀 일본정부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.
- 201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장문화에 이어 한국의 우수한 전통적 식문화 발굴 보급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식품 수출확대 움직임과 계속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.